



2011년 K리그 16번째 팀으로 그라운드를 누빌 광주 FC 선수들이 21일 무등경기장 축구장에서 올 시즌 마지막 훈련을 실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직 낯설지만
 행복한 첫 훈련”
 조광래호 합류한 손흥민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2011 아시아컵 축구 대표팀 예비 엔트리에 뽑혀 첫 훈련을 치른 손흥민(18·함부르크)의 소감은 ‘낯설’과 ‘피곤함’이었다. 21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시민축구장은 아시아컵 ‘예비 태극전사’ 21명이 조광래 감독의 눈도장을 받으려고 구슬땀을 흘렸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끈 선수는 단연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을 앞두고 치러진 프레매치에서 연속골 행진을 펼치더니 정규리그에서 3골을 폭발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시작했다. 이 때문에 조광래 감독은 직접 독일을 방문해 손흥민의 경기를 지켜봤고, 손흥민은 조 감독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규리그 2, 3호골을 잇달아 몰아치며 당당히 아시아컵 예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분데스리가 겨울 휴식기를 맞은 손흥민은 전날 오전 귀국해 제주도 전지훈련 캠프에 합류했다. 9살이나 많은 대선배 조용형(27·알아안)과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손흥민은

이날 첫 훈련을 치렀다. 오전 훈련은 선수들의 땀을 속 빼놓는 체력훈련. 손흥민은 시차 때문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올해 K-리그 신인왕에 빛나는 윤빛가람(19·경남)과 짝을 이뤄 뜨거운 땀방울을 쏟아냈다. 40여 분 동안의 체력훈련이 끝나고 손흥민은 선배들과 볼 뺏기를 하며 친분을 쌓았지만 낯선 표정은 지울 수 없었다. 손흥민은 훈련을 마치고 나서 “힘드네요. 시차적응도 안되고, 아직 대표팀에 합류해 훈련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웃음을 지었다. 그는 “다들 낯설어요. 체력훈련 파트너를 했던 윤빛가람도 처음 봤다”며 “어제 같은 방을 배정받은 조용형 선배가 ‘편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해줘서 기뻐했다”라고 덧붙혔다. 조광래 감독은 “골대 앞에서 과감하게 달려들어 가는 장면이 날카롭다”며 “속도가 빠른 분데스리가에서 90분 풀타임을 뛰는 게 쉽지 않다. 아직 세밀함은 떨어지지만 능력을 인정할 만하다”고 칭찬했다. /연남뉴스

광주FC, K리그 돌풍 1차준비 끝

무등구장서 올 마지막 훈련...오늘부터 프로연맹 신입선수 교육 참가

2011시즌에 도전하는 광주 FC가 연말 휴식에 들어간다. 광주 FC가 21일 무등경기장 축구장에서 2010년 마지막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단과 대외의 연습경기가 예정됐었지만 그라운드 사정으로 자체 훈련으로 대체 됐다. 선수단은 내달 3일까지 공식적인 휴가에 들어가지만 느긋한 여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K리그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25명의 새내기 선수들은 22일과 23일 '2011 K리그 신인선수 교육'에 참가한다. 경주에서 진행되는 신인선수 교육에는 상무를 제외한 15개 구단의 신인선수 175명이 참가한다. 이번 교육에는 박문성 SBS 축구 해설위원과 이용수 세종대학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프로스포츠와 미디어, 운동생리학과 영양, 도핑 방지, 선수 계약과 생활법률, 사회초년생의 자산관리와 재무설계 등의 강의를 하게 된다. 선수들은 휴가기간 동안 최만희 감독에게 받은 '숙제'도 풀어야 한다. 최만희 감독은 “그동안은 서로를 알고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었다면 1월부터는 본격적

으로 시즌 출격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수들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오라고 숙제를 내줬다”고 밝혔다. 일본 무대에서 활약했던 공격수 김동섭은 올림피아대표팀 인연이 있는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아 오는 2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홍명보재단 자선 축구경기에도 출전한다. 숨가쁘게 선수단을 이끌어온 초대 사령탑

최만희 감독도 휴가기간 ‘전력 완성’이라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우선지명과 신인드래프트로 25명의 선수를 영입한 광주는 경험 있는 K리거를 통해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1일 2011년도 FA(자유계약)선수 명단이 공식된 만큼 선수 영입작업도 본격화했다. 최만희 감독은 노련한 골키퍼 등 자신이 구상해 놓은 전력의 선수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휴가기간 전격을 누비며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성남 최성국, 포항 설기현, 경남 김병지 등 2011년도 자유계약 자격 취득 선수 182명의 명단을 공식했다. 이중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선수는 설기현 등 총 150명이다. FA선수는 오는 31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1년 2월 선수등록일까지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축구협, 2010 MVP에 김성민

광주FC 김성민(호남대)이 광주시축구협회 2010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김성민은 21일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0 광주시 축구인의 밤'에서 대학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내년 시즌부터 광주 소속으로 뛰게 되는 김성민은 올 시즌 대학리그 19경기에 출전해 22골을 기록하는 등 호남권 득점왕에 올랐다. 광주남초 이서빈, 북성중 서대열, 금호고 박찬우는 각각 초·중·고등부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박진영(송정서초), 이경배(광덕중), 정철호(송의고), 이준형(조선대)은 우수선수를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



수상을 받았다. 금호고 이승원 코치와 호남대 황영우 코치는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광주 FC 창단을 이끈 신이철 광주상무프로 축구단장과 이연 광주시 체육지원과장, 박진진 광주시교육청 평생건강체육과장은 감사패를 받았다. 이원대 전 광주시축구협회장에게는 공로패가 돌아갔다. /김여울기자 wool@

최경주 9년 연속 마스터스 그린재킷 도전

김경태 등 한국계 7명 출전

내년 4월 열리는 '명인 열전' 마스터스 골프대회에 역대 최다인 7명의 한국 및 한국계 선수가 그린 재킷에 도전한다. 대회를 주최하는 미국 조지아주의 오거스타 골프장은 21일(이하 한국시간) 내년 출전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한국 및 한국계 선수 7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 및 한국계 선수 6명이 출전했다. 한국골프의 간판 최경주(40)는 2010년 대회에서 상위 16위 안에 들어 9년 연속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영광을 안았고 2009년 PGA 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38)도 메이저 챔피언의 자격으로 명인열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앤서니 김(25·나이키골프)도 올해 대회에

서 상위 16위 안에 입상해 출전권을 얻었다.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상금왕 김경태(24·신한금융그룹)는 세계랭킹 30위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애 처음 마스터스에 나가는 기쁨을 누렸다. 또한 2010 브리티시아마추어 골프대회 우승자 정연진(20)과 US아마추어 퍼블리셔스 챔피언십 우승자인 재미교포 라이언 김(21·한국이름 김준민)과 함께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던 나상욱(27·타이틀리스트)도 출전해 필 미켈슨,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 등 강호들과 대결을 펼친다. 내년 4월7일 열리는 마스터스 대회는 개막 1주 전 세계랭킹 50위까지 출전권을 주기 때문에 세계 랭킹 64위인 노승영(19·타이틀리스트)도 내년 상반기에 좋은 성적을 올린다면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연남뉴스

온가족을 위해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온 가족이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국가대표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비타민하우스와 함께 하세요.

비타민은 비타민하우스 www.vitaminhouse.net / 대표전화 1588-8529

명품시계 전남/북 총판
 A/S는 유명백화점 갤러리어클락 매장과 공유됩니다.

GALLERY O'CLOCK

갤러리어클락 광주점
 TEL. 062 233 2251
 광주 동구 충장로2가 25-1번지(학생회관 후문 다이소 옆)

* 본 매장은 정품만을 취급합니다.
 * 명품시계 취급점 모집

CITIZEN, TechnoMarine, FENDI, TIMEX, Salvatore Ferragamo, BOSS, Paul Smith WATCH, CELINE, COACH, NIXON, AIGNER, D&G